

112번째 도전... 최혜진 "아! 한타 차"

LPGA 마이어 클래식 준우승 2·3R 공동1위, 16번 홀까지 선두 17번 홀 보기 역전... 통한의눈물 스페인 시간대에 우승 컵 넘겨 "다음 대회 잘 준비... 꼭 우승"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첫 우승 코앞에서 멈춰선 최혜진이 "다음 대회를 잘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최혜진은 16일(한국시간) 미국 미시간주 벨몬트에서 끝난 LPGA 투어 마이어 클래식(총 상금 300만 달러)을 최종 합계 15언더파 273타로 마무리했다.

우승한 카를로타 시간다(스페인)에게 1타 뒤진 단독 2위다.

세계에서 가장 골프를 잘 치는 선수들이 모인 LPGA 투어에서 2위 성적은 훌륭한 결과지만 최혜진에게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2022년 LPGA 투어 진출 이후 88번째 대회에서 첫 우승을 달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비회원 자격으로 출전한 대회까지 더하면 112번째 LPGA 투어 대회였다.

23라운드를 공동 1위로 끝내고 이날 16번 홀까지 1타 차 단독 선두를

달려 우승 고지가 눈앞에 보였으나 17번 홀(파4) 보기가 나오면서 같은 홀에서 버디를 잡은 시간다에게 1타 차 역전을 허용했다.

최혜진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좋은 라운드였고 우승 기회도 있었으나 17번 홀 보기가 아쉽다"

며 "다음 대회를 잘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최근 컨디션이 좋아 우승 기회도 여러 번 있었다"며 "이번 주에도 컨디션이 좋았고, 다음 주에 메이저 대회가 열리는 만큼 이런 흐름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통산 5번째 LPGA 투어 준우승을 기록한 최혜진은 최근 멕시코오픈과 US오픈 공동 4위에 이어 3개 대회 연속 '톱4' 성적



최혜진이 16일(한국시간) 미국 미시간주 벨몬트의 블라이더필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마이어 클래식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최혜진이 18번 홀 퍼트 결과에 아쉬워하고 있다. 타샷한 뒤 공을 바라보고 있는 최혜진(작은 사진). AFP-연합뉴스

을 냈다. 다음 주에는 시즌 세 번째 메이저 대회인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이 열린다.

최혜진은 "이번 주에 페어웨이나 그린을 많이 놓치지 않아 버디 기회도 많았다"며 "한국 팬들도 많이 오셔서 응원해 주셨는데 내년엔 더 좋은 경기를 보여 드리고 싶다"고 각오를 전했다.

또 14언더파 274타를 치고 단독 3위에 오른 이소미는 "최근 아이언샷과 퍼트 연습을 많이 했는데 이번 대회 결과에 만족한다"며 "예전부터 복잡한 생각 없이 골프할 때 잘했

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이날 65타가 LPGA 투어 개인 18홀 최저 타 타이 기록인 이소미는 "다음 주 메이저 대회지만 크게 의식하지 않고, 내 경기력에 집중하며 치르겠다"고 덧붙였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3월23일 경기도 수원케이티위즈파크를 찾은 관중들이 2025 KBO리그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와 kt wiz의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 600만 관중 새 역사 새길까

치열한 순위 경쟁이 한창인 2025시즌 프로야구가 역대 최소 경기 600만 명 관중 돌파를 눈앞에 뒀다.



올해 KBO리그는 15일 현재 345경기에서 관중 596만8777명을 동원해 600만 관중 돌파에 불과 3만223명만을 남겼다.

올해 KBO리그는 15일 현재 345경기에서 관중 596만8777명을 동원해 600만 관중 돌파에 불과 3만223명만을 남겼다.

올해는 그보다 60경기가량 기록을 단축할 것이 유력하게 예상된다.

중전 600만 관중 최소 경기 기록은 지난해 418경기로, 당시 7월3일에 해당 기록이 수립돼 역대 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전반기에 600만 관중을 돌파했다.

올해는 그보다 60경기가량 기록을 단축할 것이 유력하게 예상된다.

구계 안팎의 공통된 의견을 비롯기라도 하듯, 여전히 3위 자리에서 굳게 버티고 있다.

윤동희·나승엽·황성빈과 황성빈의 자리를 채우던 장두성까지 부상으로 이탈한 와중에도 최근 10경기 5승5패로 '잇몸 야구'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올 시즌 한화와 롯데의 상대 전적에서는 3승4패로 한화가 박빙 열세다.

한화가 롯데와 주중 3연전 고비를 넘기면, 주말에는 안방인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로 돌아와 리그 최하위 키움 히어로즈와 만난다.

이번 시즌 한화의 키움전 상대 전적은 5승 1패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반면 15일 잠실 두산 베어스전 패배로 리그에서 가장 먼저 50패(20승 2무)를 당한 키움은 주말 한화전에 맞춰 부상 대

15일 전국구장 597만 명 몰려... 우천 취소 없으면 신기록 달성 33일 만 정상 탈환 한화 경기 불만... 롯데·키움전 1위 수성 관심

경기당 평균 1만7301명이 입장한 현재 추세가 시즌 마지막까지 이어지면, 시즌 총 관중은 지난해 1088만7705명을 넘어 1200만 관중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날로 뜨거워지는 야구 인기처럼, 순위 싸움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한화 이글스는 15일 LG 트윈스에 10-5로 역전승해 지난달 13일 이후 33일 만에 1위 자리를 되찾았다.

한동안 독주하던 LG를 무너뜨리고 본격적으로 프로야구 1위 싸움을 양강 체제로 개편한 것이다.

강력한 선발진의 힘으로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 상승세를 탄 한화는 1위를 지키는 게 목표다. 주중 부산 사직구장에서 벌어진 롯데 자이언츠와의 3연전은 한화의 전력능을 가늠할 좋은 기회다.

롯데는 "여름이면 떨어질 것"이라는 야

체 외국인 선수 라클란 웰스를 선발로 낼 준비 중이다.

한화에 1위를 내준 2위 LG는 이번 주 안방인 서울 잠실구장에서 6연전을 치른다.

주중에는 리그 8위 NC 다이노스를 만나고, 주말에는 잠실 라이벌이자 올 시즌 리그 9위로 처진 두산과 상대한다.

NC와 두산 모두 올 시즌 성적이 좋지 않지만, LG는 이들을 상대로 각각 5승 3패와 3승 3패로 큰 재미를 보지 못했다.

올 시즌 홈 승률(0.647)이 방문 경기 승률(0.545)보다 1할 이상 높은 LG는 이번 주 홈 6연전에서 1위를 탈환하는 게 목표다.

여전히 리그 7위에 머물고 있는 디펜딩 챔피언 KIA 타이거즈는 주중 3연전에서 kt wiz(광주)와 상대한 뒤 주말에는 인천에서 SSG 랜더스와 중원권 다툼을 벌인다.

Inhancer Plus™
관절영양제의 혁명
인한서 플러스
글루코사민 + 콘드로이틴 + MSM + 브로멜라인 + 레시틴

오프라인 전용: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MSM 첨가, 관절 영양제, 인한서 플러스, 브로멜라인, 레시틴 풍부

온라인 전용: A Supplement to Help Maintain the Healthy Joints of High Activity and Older Dogs, Glucosamine, Chondroitin from Shark, Rich in Lecithin, Formulated to Keep a Dog at the Head of the Pack!

관절 관리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